《신천지》 망령에 푹 절은 《미래통합당》

남조선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원망과 혐오감이 날로 짙어가고있다.

《신천지》 하면 《COVID-19》를 머리에 떠올릴 정도로 이 무서운 전염병을 사회에 전파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전파확대의 주되는 온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한 범죄적인 종교단체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깊이 얽혀져있어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눈초리가 쏠리고있는것이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 과연 이 둘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것인가.

배격받는 《신천지》, 감싸주는 《미래통합당》

3월 19일현재 남조선의 《COVID-19》 감염자수는 8 565명으로서 그 대다수가 《신천지》 교회소속의 신도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삽시에 남조선을 《COVID-19》 전파 《천국》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지금도 방역조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신분과 거주지 등을 숨기면서 전염병을 계속 전파시키고있다고 한다.

지난 2월 9일과 16일 오전에 례배를 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처음 무더기로 나왔지만 《신천지》 교회측은 례배참석자가운데 일부만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인원들은 뒤로 빼돌렸다. 그런가 하면 신도들에게 《례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대글조작에 가담하라.》 등의 범죄적인 지시까지 내리였다. 집단감염의 주요통로인 보수단체의 집회들에 참가한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당국의 요구에도 《신천지》측은 해당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COVID-19》 집단감염사태를 일으킨 《신천지》 교주를 당장 체포하고 교회를 강제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월말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여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86.2%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95.8%의 응답자가 압수수색을 찬성했다고 한다. 이것은 《신천지》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것이다.

민심은 이처럼 《신천지》를 저주, 배격하는데 유독 위험한 전염병전파집단을 비호두둔해나선것이 《민생》을 곧잘 떠드는 《미래통합당》이다.

이미 보도된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집행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남조선정치계와 각계에서 비난이 일자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이 왜 나서는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것이다,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하고있다면서 항의하는 피이한 추태를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당국과 여당이 전염병사태의 책임을 《특정교단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신천지》에로 쏠리는 여론의 이목을 억지로 다른데로 돌리려 하였다.

범죄집단인 《신천지》를 로골적으로 감싸주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미래통합당》이 《COVID-19》가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정치집단이라는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온것은 당연한것이다.

끊을수 없는 뿌리깊은 유착관계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를 감싸고도는것은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책임을 넘겨씌움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의 의석이라도 더 따내려는 정치적리해타산때문만이 아니다. 그 바탕에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사이의 깊은 유착관계가 깔려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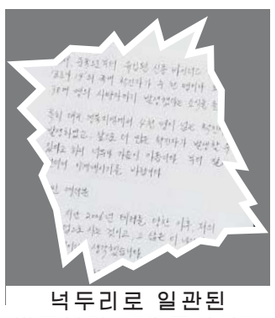
남조선의 언론계와 종교계에서는 《신천지》에 대해 파헤치면 헤칠수록 《미래통합당》의 과거와 현재가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보수세력이 입을 타격이 심대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원래 《신천지》는 갖은 허황한 설교로 사회적악만을 증폭시켜 민심이 사이비종교로 락인하고 비난해왔다. 여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신천지》는 오래전부터 정치세력들에 교세확장의 촉수를 뻗치였다. 그 주요대상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정당이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이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눈에는 《신천지》가 구미당기는 《협력대상》으로 비끼였다. 《신천지》가 엄청난 자금과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있기때문이였다. 더군다나 박근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이전 《새누리당》 수장으로서 광신적인 사이비종교추종자이기도 하다.

서로의 리해타산이 들어맞아 《신천지》와 보수정당은 오래전부터 배꼽을 맞추고 서로 업고 업히는 관계를 형성해온것이다.

지난 3월초 《신천지》 교주는 각계의 비난과 저주에 부딪쳐 마지못해 《사죄》를 운운하는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았었다.



넉두리로 일관된 박근혜의 《옥중서신》

기만적인 사죄놀음을 벌리고있는 《신천지》 교주

말이 《사죄》이지 저희들도 《피해자》라고 뻔뻔스럽게 주절대는 《신천지》 교주의 손목에서는 《박근혜시계》가 번쩍이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신천지》 교주가 《내가 곤난해지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해.》라는 무언의 경고를 《미래통합당》에 보냈다고 전하였다.

《신천지》와 박근혜, 박근혜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남조선정치사의 더러운 갈피들을 뒤적여보면 정녕 뗄수 없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신천지》 교주가 기자회견에서 손목에 찬 《박근혜시계》를 드러내보인 후 이틀이 지나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한테서는 《까욱》하는 소리가 났다. 수하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를 세상에 공개한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였다.

《COVID-19》로 《국민생명이 걱정》이라는 등 노죽과 너스레로 시작된 친박세력들에게 보내는 박근혜의 《옥중서신》에는 이번 사태로 《신천지》 파문이 확대되여 자기와의 관계가 폭로되면 《미래통합당》도 결코 무사치 못할수 있으니 《신천지》를 보호하라는 《은밀한 언어》도 들어있었다.

《신천지》와 박근혜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보호》를 사실상 강박해나선것은 이들사이의 관계가 너무도 깊이 얽혀져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 자료에는 이런 흥미있는 대목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에 걸쳐 1조 8 000억원의 대출사기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금의 일부가 《신천지농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였으며 사건수사가 심화되는 과정에 검찰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에게 그 돈의 일부가 가있다는것이 밝혀졌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치웠다. 후날 박근혜가 집권하여 청와대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의원이라는자는 말썽많던 《신천지농장》을 부랴부랴 처분해버렸다고 한다. 그때 생긴 엄청난 자금이 돈벌레로 소문난 박근혜의 검은 배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을리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가 2008년 《신천지》 교주에게 년하장을 보내였다는 사실, 2016년 12월 한 모임에서 《신천지》 교주가 박근혜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쑥덕공론을 하였고 지어 보수당국은 그를 《유공자》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여 사회적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이런 사실도 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중의 한 인물이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추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보수당에서 최고위원까지 한 그가 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리유는 단 하나이다. 박근혜가 민심기만책으로 《한나라당》이라는 당의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그가 《〈새누리〉는 〈신천지〉가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기때문이다.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박근혜가 단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된 《신천지》를 우리 말로 바꾸어 표기한것이였다고 한다. 즉 사이비종교단체인 《신천지》와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꼭같은 이름을 가진 한몸통인것이다.

리명박이도 《신천지》와 깊이 얽혀져있다고 한다.

2007년 그는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군중이 모인 체육관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목에 피대를 돋구며 웨치였었다.

남조선언론들이 파헤친데 의하면 리명박과 박근혜는 2002년부터 각종 선거때마다 1만여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끌어당겨 저들의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리용하였다고 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리명박, 박근혜의 하수인들도 저저마다 《신천지》와 입맞추며 돌아쳤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시기에 현 대구시장과 중진의원이라는자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신천지》에 표창장을 수여해준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불과 몇달전인 2019년 11월에는 《신천지》가 벌려놓은 행사모임에 《미래통합당》 소속의 현 《국회》 부의장이 《축전》까지 보내였다.

리명박,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 《신천지》는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비난을 받았지만 처벌은커녕 수사도 받지 않았고 온갖 특혜를 누리였다고 한다. 당시 남조선 언론들은 그것이 보수 《정권》과 《한나라당》, 《새누리당》과의 유착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파볼수록 새로운 자료가 드러나고 끌이 없을상싶은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서로 얽혀진 깊은 뿌리.

《신천지》의 뿌리를 들추어 하나하나 파내느라면 《미래통합당》이 걸려나오고 《미래통합당》의 뿌리와 줄기, 가지를 흔들어대면 《신천지》라는 흙,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바람에 날린다.

그야말로 《신천지》의 망령에 《미래통합당》이 푹 절어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 *

2017년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여 정치와 민생을 말아먹은 박근혜 《정권》을 단호히 심판하였다.

최순실 《국정》 롱단사건의 뿌리와 줄기에 박근혜와 치정관계를 맺어온 최태민이 교주로 있은 사이비종교단체 《영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정치와 종교의 범죄적인 유착이 정치를 어떻게 롱락하고 인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남조선에서 사이비종교단체와 사이비정치세력의 검은 유착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배척을 받는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사이의 오늘도 이어지는 뿌리깊은 밀착관계이다.

민의를 거역하면 노한 민심의 벌을 받기마련이다.

《신천지》가 지금 민심의 경멸과 드세찬 해체요구에 전전긍긍하며 숨어 돌아다니듯이 죄많은 《미래통합당》이 인민들의 증오와 배격을 받고있는것은 피할수 없는 똑같은 숙명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도서 《우리는 통일세대》 발행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적시민단체들이 벌리고있는 《북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공화국의 발전모습을 소개한 도서 《우리는 통일세대》가 발행되여 주목을 끌고있다.

이 도서는 남북력사문화교류협회 상임리사를 맡고있는 김이경(녀자, 59살)이 집필하였다.

그는 2019년에도 공화국을 소개하는 도서 《북맹(북을 전혀 모르는 사람)탈출 평양이야기》를 발행하였다.

김이경은 도서 《우리는 통일세대》에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 북을 편견적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도서는 제1장 《북녘청소년의 성장기》, 제2장 《북녘인민들 삶의 이모저모》, 제3장 《북현대사를 알아야 지금의 북이 보인다》, 제4장 《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북녘의 문학예술》로 구성되여있다.

김이경은 책을 발행하면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북녘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남조선언론들은 도서 《우리는 통일세대》가 가짜뉴스와 편파보도에 가리워진 북에 대한 외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있는 진짜모습을 제대로 볼것을 권고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이 도서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제재 등과 같은 국내외적어려움속에서도 발전의 한길을 걸어온 북의 력사와 그속에서 꽃펴난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학예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있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 8 565명, 사 망 자 9 2 명

보도들에 의하면 19일현재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가 8 565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기준으로 비루스감염자가 152명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감염자들중 109명이 대구, 경상북도(대구 97명, 경상북도 12명)에서 나왔다.

서울, 경기도지역에서는 30명(서울 12명, 경기도 18명)의 비루스감염자가 새로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92명이다.

92번째 사망자는 81살 난 남성으로서 경상북도 청도군립료양병원에 입원해있던중 숨졌다. 사망후 그가 《COVID-19》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서울 구로구의 보험회사와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교회와 련관된 비루스감염자는 18일까지 각각 130여명, 50여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의 료양원과 료양병원 등 5곳에서 80명이상의 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대구의 《신천지》교회에 이어 부산, 서울, 부천, 수원 등지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있다.

감염병전문가들은 많은 인구가 밀집되여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단감염사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후과는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보다 클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려행류의 경보를 내렸다.

본사기자

변함없는 대결흉심의 발로

최근 남조선군부가 《COVID-19》 확산으로 련합군사훈련들을 취소가 아닌 연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있다고 떠들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제74기졸업 및 임관식축사라는데서 《6.25전쟁과 〈천안〉함피격과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남조선군부의 동족대결흉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COVID-19》가 급속히 확대되고있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에서도 이미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90여명(19일현재)이 사망하였다. 앞으로 이 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련합군사훈련들의 취소가 아닌 연기를 떠든것을 보면 남조선군부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무던히도 매달리고있음을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각종 합동군사연습들로 말하면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임의의 순간에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들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안고 조선반도를 주시하군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는것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할 생각밖에 없다는것을 자인한셈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곧잘 떠들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벼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군부 호전세력들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자가 《6.25전쟁과 〈천안〉함피격과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은것도 이를 실증해주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가 아직도 이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는 호전적망동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는것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할 생각밖에 없다는것을 자인한셈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곧잘 떠들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벼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군부 호전세력들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자가 《6.25전쟁과 〈천안〉함피격과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궤변을 내뱉는가 하면 황당한 《국민행복》타령을 읊조리며 인민들을 《삶포세대》, 《N포세대》로 전락시켰다.

그런 속에 남조선은 자살률, 실업률, 출생률저하 등에서 수치스러운 세계1위를 기록하였던것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롱산철거민, 쌍룡로동자들, 백남기농민을 야만적으로 진압, 살인하고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 등을 빚어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에 비유하고 지어 설치류로 조롱한것도 바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전 보수 《정권》들이였다.

《리명박근혜정권》으로 하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은 처참하게 짓이겨졌다.

하지만 초불이 무서워 바퀴벌레처럼 구석에 숨어있던 보수세력은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정권심판》을 부르짖고있는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노는 짓거리도 역겹고 총포탄을 쏘아대며 북남관계를 전쟁접경까지 몰아간자들,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 암흑천지로 만든자들의 《안보》궤변과 《민생》타령에 무맥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여 여야당에 대한 《무관심층》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이른바 《중도》를 표방하며 생겨난 군소정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민생우선》, 《중도개혁》, 《중도실용》의 귀맛좋은 구호를 내들고나선 중도정당들이지만 그것이 한갖 《국회》에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용에 불과할뿐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평이다.

아니나다를가 《중도》를 표방하던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은 내들었던 《중도》공약을 내버리고 보수의 《큰 형님》인 이전 《자한당》에 기신기신 기여들어가 《미래통합당》이라는것을 얼렁뚱땅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저들의 당직과 《공천》권을 그대로 보장해달라고 애걸까지 하면서.

그러고보면 《중도》라는 귀맛좋은 말은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여기저기 날아가 붙는 《철새》라는 말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다.

서로가 민심을 대변하고 민생을 위한다지만 정치권이 권력다툼에만 눈이 벌개 살벌한 풍경만 펼치고있으니 남조선에서 정치무관심, 정치외면, 정치불신, 정치기피의 움직임이 날을 따라 확산될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불길로 고통받는 겨레에 대한 유린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문화재청을 내세워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북과 남이 공동등록하는 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2020년 문화재청업무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기준인 《탁월한 가치》에 부합되는 론리를 도출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횡설수설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연출한 이러한 놀음이 민족분렬로 고통받는 겨레를 우롱하는 망녕된짓이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잘 알수 있을것이다.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로 말하면 장장 70여년간 민족의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왔으며 지금도 북남사이에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지역으로 되고있다.

우리 겨레가 세기를 이어 당하고있는 분렬의 치욕과 아픔이 그대로 서리여있고 일촉즉발의 군사적긴장이 감도는 지대를 그 무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것은 상식이하의 해괴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한시바삐 들어내야 할 분렬의 가시철조망과 참혹한 전쟁의 잔해, 지금도 대결광기를 풍기는 원한의 콩크리트장벽따위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자랑》해야 할 대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될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비극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러한 행위에 온 겨레가 분노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와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비무장지대를 관광지대, 돈벌이공간으로 만들려는것은 온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망동이다.

이것은 비무장지대를 고착화, 합법화, 상품화하여 민족분렬과 동족대결의 비극을 영속시키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온 겨레앞에 약속한 북남합의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려온 장본인들이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뻔뻔함의 극치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날로 확산되는 정치무관심

남조선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결과 정쟁만 벌리는 여야당들의 행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정치에 등을 돌리는 《무관심층》이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 집권세력은 물론 민생보다 《정권심판론》을 떠들며 정치판을 리념대결, 《색갈론》의 진흙탕으로 만들고있는 보수패들에 대한 환멸과 질시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있다고 한다.

《정권심판론》은 파쇼독재와 동족대결에만 광분하다가 탄핵되여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보수패들의 앙심의 표현이고 과거 리명박, 박근혜독재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미래통합당》의 야망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마치 저들이 집권하면 《새로운 활력》, 《번영하는 삶》을 가져올것처럼 떠들고있다. 하지만 《유신》독재를 비롯한 군부독재 《정권》의 바통을 이은 《리명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을 신물이 나도록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사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던 리명박의 《747공약》은 가계부채 800조원, 물가상승 5%, 비정규직 850만명을 낳은 《858경제대란》으로 되여 남조선에 《부자천국, 서민지옥》을 펼쳐놓았다.

박근혜 역시 《경제민주화》를 고아댔지만 결국에는 특권재벌들을 위한 《경제개악》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를 구하려면 《중동으로 가라.》는 궤변을 내뱉는가 하면 황당한 《국민행복》타령을 읊조리며 인민들을 《삶포세대》, 《N포세대》로 전락시켰다.

그런 속에 남조선은 자살률, 실업률, 출생률저하 등에서 수치스러운 세계1위를 기록하였던것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롱산철거민, 쌍룡로동자들, 백남기농민을 야만적으로 진압, 살인하고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 등을 빚어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에 비유하고 지어 설치류로 조롱한것도 바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전 보수 《정권》들이였다.

《리명박근혜정권》으로 하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은 처참하게 짓이겨졌다.

하지만 초불이 무서워 바퀴벌레처럼 구석에 숨어있던 보수세력은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정권심판》을 부르짖고있는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노는 짓거리도 역겹고 총포탄을 쏘아대며 북남관계를 전쟁접경까지 몰아간자들,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 암흑천지로 만든자들의 《안보》궤변과 《민생》타령에 무맥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여 여야당에 대한 《무관심층》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이른바 《중도》를 표방하며 생겨난 군소정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민생우선》, 《중도개혁》, 《중도실용》의 귀맛좋은 구호를 내들고나선 중도정당들이지만 그것이 한갖 《국회》에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용에 불과할뿐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평이다.

아니나다를가 《중도》를 표방하던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은 내들었던 《중도》공약을 내버리고 보수의 《큰 형님》인 이전 《자한당》에 기신기신 기여들어가 《미래통합당》이라는것을 얼렁뚱땅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저들의 당직과 《공천》권을 그대로 보장해달라고 애걸까지 하면서.

그러고보면 《중도》라는 귀맛좋은 말은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여기저기 날아가 붙는 《철새》라는 말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다.

서로가 민심을 대변하고 민생을 위한다지만 정치권이 권력다툼에만 눈이 벌개 살벌한 풍경만 펼치고있으니 남조선에서 정치무관심, 정치외면, 정치불신, 정치기피의 움직임이 날을 따라 확산될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